

### 15)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 프로그램: 바위따라 떠나는 주왕산 지질여행
- 유 형: 당일형
- 참가대상: 누구나
- 운영장소: 주왕산국립공원 일원
- 운영일정

집결(탐방안내소) → 탐방안내소 탐방 → 점심식사→ 주왕계곡 자연해설(무장애탐방로 트래킹) → 지질 명소 탐방 → 마무리 및 해산

# 바위따라 떠나는 주왕산 지질여행

## ▣ 생태관광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바위따라 떠나는 주왕산 지질여행
- 유 형: 당일형
- 참가대상: 누구나
- 운영장소: 주왕산국립공원 일원
- 운영일정

집결(탐방안내소) → 탐방안내소 탐방 → 점심식사 → 주왕계곡 자연해설(무장애탐방로 트레킹) → 지질 명소 탐방 → 마무리 및 해산

## ▣ 일정표

시간	주요일정	세부내용
10:00~10:30	오리엔테이션	- 집결(탐방안내소) - 환영 인사 및 일정소개 - 안전교육
10:30~11:30	탐방안내소 탐방	- 탐방안내소 소개 - 전설 품은 바위 이야기 · 주왕산의 생성원인
11:30~12:30	중식 및 휴식	- 도시락
12:30~15:00	주왕계곡 자연해설	- 주왕계곡 자연해설(무장애탐방로 트레킹) · 주왕산 기암괴석에 얽힌 역사와 전설 · 주왕산나들이(대전사~용추폭포) - 지질 명소 탐방 · 주왕계곡의 지질 명소 탐방
15:00~15:30	하산	- 하산
15:30~16:00	마무리 및 해산	- 기념사진 찍기 및 설문조사 - 소감나누기

## ▣ 대표 프로그램 예시

### · 전설품은 바위이야기 해설



### · 주왕계곡 자연해설



### · 지질명소 탐방



· 주왕산국립공원의 기암괴석과 계곡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자연경관과 학교에서 쉽게 전하기 어려운 바위 식물을 소재로 하여 교육과 놀이를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고, 주왕산의 기암괴석에 담긴 역사와 전설을 알아가며 자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 듣고 ·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주왕계곡을 따라 걸으며 참나무군락지에서 뽕어내는 피톤치드로 산림욕을 체험하여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피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계곡 곳곳에 살고 있는 다양한 바위식물, 동·식물들을 관찰하면서 자연 보전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주왕산국립공원은 화산폭발로 인해 화산재가 쌓인 후 굳어져 만들어진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아메나 주상절리 등의 특징들을 보여준다. 청송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 24개 중 9개가 주왕산에 있어 독특한 지질적 특성을 눈으로 직접 보고 가까이에서 관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 운영 방법(유의사항)

- 가. 참여자 모집 후 체험프로그램 예약, 차량배차, 보험가입 등을 사전 준비 한다.
- 나. 국립공원의 이해와 주왕계곡 자연해설을 쉽고 유익하게 해설한다.
- 다. 이동시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생태관광 취지를 이해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즐기도록 한다.

# 바위따라 떠나는 주왕산 지질여행

활동장소  
소요시간  
참가대상  
참가인원

주왕산국립공원 내  
6시간  
누구나  
15명

## 활동목표

- 주왕산국립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질자원의 특성을 안다.
- 주왕산의 기암괴석에 담긴 역사와 전설을 알아가며 자연자원의 소중함을 안다.

## 준비물

- 편안한 복장, 구급키트 등

## 유의사항

- 자연놀이 시 자연물을 꺾거나 따지 않고 주워서 활용하도록 주의
- 탐방로를 걸을 때 안전에 유의한다.

단 계	내 용	시 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첫 만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li><li>-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 할 수칙 공유)</li></ul></li></ul>	30분
전개 I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설 품은 바위이야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왕산의 생성원인</li></ul></li></ul>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식</li></ul>	60분
전개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왕계곡 자연해설(무장애탐방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왕산 기암괴석에 얽힌 역사와 전설</li><li>- 주왕산나들이(대전사~용추폭포)</li></ul></li><li>• 지질 명소 탐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왕계곡의 지질 명소 탐방</li></ul></li></ul>	180분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념사진 찍기 및 설문조사</li><li>• 소감 나누기</li></ul>	20분

세부내용  
(시나리오)

인사 및 일정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왕산국립공원에서 근무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왕산국립공원 생태관광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만나 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일기일회란 말이 있습니다. 일생에 단 한번 뿐인 인연이란 말이지만, 그 단 한번이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어서 나머지 생애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지금의 만남이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인연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참가한 프로그램은 “솔향기 따라 떠나는 주왕산이야기”입니다. 주왕산국립공원의 기암괴석과 계곡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며 또한, 학교에서 쉽게 전하기 어려운 바위 식물들을 소재로 하여 교육과 놀이를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안전교육)

자~ 이제 솔향기 따라 떠나는 주왕산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모두들 출발 구호를 외치며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 국립공원 소개 및 역할

이곳은 탐방안내소인데요. 주왕산을 탐방하기 전 들리는 탐방안내소는 이곳의 지형과 유의사항 등을 알고 탐방 하실 때 더욱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 된 곳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왕산국립공원에는 청송세계지질공원의 지질명소 24개 중 9개의 명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볼 수 있는 암석과 암석이 생성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주왕산권 지질 학습관’을 이 곳 탐방안내소에 마련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립공원이라는 말만 계속 듣고 계시는데 과연 국립공원이란 어떤 곳일까요?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경관 및 문화자원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이러한 곳을 국민들이 훼손 없이 이용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자연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몇 개가 있을까요?(정답유도)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모두 22개가 있습니다. 그 중 주왕산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경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1976년에 1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비록 12번째로 지정이 되었으나 조선 숙종 때 편찬된 이중환의 택리지(지리를 풍수와 문화에 접목해 만든 인문지리서)에서 ‘돌로써 골짜기를 이루어 마음과 눈을 모두 놀라게 하는 산’이라 기록된 것을 보면 주왕산은 이미 오랜 옛날부터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주왕산의 생성

저기 앞에 보시면 커다란 바위가 보이는데 저 바위는 ‘기암’이라는 바위입니다. 저 바위를 보시면 마치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저기 바위는 화산재가 약 350m라는 거대한 화산재가 쌓이면서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특히 이 화산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식어 굳어지면서 응어리처럼 치밀하고 단단해지면서 주왕산의 주 암석인 회류응회암이 만들어졌습

니다.

회류응회암은 긴 틈의 절리가 발달하면서 수직의 절리를 따라 침식이 이루어졌고, 약한 부분은 조각 되었으며 강한 부분은 남아 웅장한 봉우리들과 절벽으로 이루어 주왕산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곳 탐방안내소에서 잠깐의 설명만 듣고 가지만 현장에서 보시면 이곳이 바로 '진정한 세계지질공원이구나'라고 할 겁니다. 또한 이곳 탐방안내소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장에서는 잘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화강암의 생성되는 과정을 쉽게 관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구과학이나 학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현장학습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왕산탐방안내소를 관찰하였고, 점심 식사 후 천천히 준비 하셔서 산으로 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식사 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 주왕산의 역사문화자원 소개 - 주왕 전설과 대전사 보광전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곳 주왕산에는 흥미로운 전설이 있습니다. 22개의 국립공원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 주왕산의 지명유래는 김주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신라 37대 선덕왕이 후손이 없어 무열왕 6대손인 김주원이 왕으로 추대를 되었으나 상대등 김경신(38대 원성왕)에 의해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이 곳 주왕산 급수대에서 은거하여 살았다고 하여 김주원의 '주'자를 따서 주왕산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신라의 역사와 함께하는 주왕산의 도입부에 자리한 대전사는 과연 어떠한 사찰일까요? 대전사는 신라 문무왕 672년 의상조사께서 창건하여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시대로 이어져 온 청송의 중심 사찰이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그 도량은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그 후 선조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신심으로 현종 13년(1672) 보광전을 새로이 짓고 당루와 4~5채의 집을 중창하였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보광전은 정면3칸, 측면3칸의 단층 맞배지붕의 다포양식으로서 조선중기 이후의 목조건축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물로 보물 157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봉안한 곳을 대웅전·대웅보전이라 하지만 이곳 대전사에서는 보광전에 모셔져 있으며 좌보처 제화가라보살, 우보처 미륵보살이 있습니다. 보광전의 특이한 점은 석가모니불을 일반적인 양식인 연꽃 모양의 연화좌에 안치하지 않고 세 마리의 사자가 떠받들고 있는 사자좌에 불상을 안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자상은 사자처럼 웅맹스럽게 정진하라는 뜻을 나타내지만 양증 맞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 해학을 담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무장애 탐방로 트레킹

지금까지 대전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어렵고 생소한 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격적인 주왕산 탐방을 위해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도착한 이곳이 바로 주왕산의 자랑인 무장애 탐방로입니다. 무장애 탐방로는 주왕산국립공원의 신(新)탐방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된 것인데 대전사를 기점으로 약 3.4km의 탐방구간을 설정하여 노

약자(老弱者)에서 노약자(NO弱者)로 거듭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것입니다. 어린이에서 노약자까지 남녀노소 그 누구라도 가볍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주왕산 기암



대전사 보광전



무장애탐방로 트레킹

### 주왕산 나들이 - 자연체험학습 I. 주왕산 암석이야기

주왕산은 앞에서 본 기암이나 장군봉처럼 이상한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는 봉우리가 많습니다. 이 봉우리가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대답 유도) 그럼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주왕산을 형성한 화산활동은 지금으로부터 약 7천만 년 전의 일로 추정됩니다. 지질학적으로는 중생대 백악기 후기인데, 이때가 바로 한반도에 공룡들이 살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산들은 주왕산 가까이에는 포항 내연산이 있고 남쪽으로 영천 보현산, 청도 운문산, 거제, 남해를 거쳐 고흥반도, 완도, 진도들로 이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약간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럼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자연체험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저의 말이 와 닿을 것 같습니다.

- 자연체험놀이(가장 닳은 쌍둥이 돌 찾기) -

여러분~ 지금부터 이 주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돌 하나를 저에게 가져오세요, 모두들 가져오셨나요? 우와~ 다들 예쁜 돌을 가져오셨네요. 그럼 이 돌을 가지고 돌보기로 관찰한 후 옆 사람이 가져온 돌이랑 비교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생긴 돌이나 비슷하게 생긴 돌이 있나요? (대답 유도)

없죠? (네~~~)

사실 똑같이 생긴 돌을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완전히 똑같은 돌이 있거나 할까요? 그건 당연히 없답니다. 그럼 그이유가 뭡까요? 사람은 쌍둥이가 있는데 돌은 왜 쌍둥이가 없는지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암석의 풍화작용 때문입니다. 돌의 생성과정을 보면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서 마그마가 찬 공기에 의해 굳어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위입니다. 이렇듯 주왕산의 바위는 눈, 비, 바람 등 기상변화에 따라 깎여지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다보면 저마다 모양과 색깔이 다른 돌이 된답니다.

(이동)

### 주왕산 나들이 - 자연체험학습 II. 아들바위 돌던지기

여러분 잠깐 목책 너머를 주목해주세요. 무엇이 있나요?

네~~ 큰 바위 하나가 있죠? 이 바위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

요?

다들 모르신다구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바위의 이름은 ‘아들바위’랍니다. 많은 이름 중에 왜 하필 ‘아들바위’라고 지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아들바위라고 부르는 이곳은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들바위 위를 자세히 보면 수많은 돌이 얹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리를 어깨너비만큼 벌리고 다리사이로 돌을 던져 저 바위에 얹으면 아들을 낳고 떨어뜨리면 딸을 낳는 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코웃음을 칠 수 있겠으나 그만큼 예전에는 얼마나 아들을 귀하게 여겼고 딸보다 우위에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아들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바로 옛날에는 잦은 외부의 침략으로 인하여 전쟁을 할 병력이 필요 했는데 그 병력이 바로 힘이 강한 아들이 필요 했던 겁니다. 지금은 아들, 딸 어느 한쪽을 바라지 않고 부모님들 품에 들어 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뿐이죠~!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미래에 자녀가 아들일지 딸일지 궁금 하실텐데 한번 던져 보시구요 기혼이신 분들은 재미삼아 던져 보신 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왕산 나들이 - 자연체험학습Ⅲ. 주왕산산림욕

여기서 잠깐 멈춰 볼까요? 주변을 한 번 둘러보세요. 지금까지 걸어온 탐방로와 다르게 이 곳에는 쉴 수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공간이 넓어서 의자를 만들어 놓은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탐방로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어떤 나무가 있고 오른쪽에는 어떤 나무가 있나요?

예~맞습니다. 왼쪽엔 소나무가 있고 오른쪽에는 참나무가 모여 있죠? 숲은 우리가 걸로 보기에 아주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을 서로 다른 식물들이 자리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나무와 참나무이지요. 생태학적으로 같은 곳에서 소나무와 참나무가 자라게 되면 참나무가 더 우월한 위치에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나무는 소나무를 밀어내려 하고 소나무는 밀려나지 않으려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나무랑 참나무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뿜어서 경쟁을 하게 된답니다. 그 화학 물질 중 하나가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삼림욕의 대명사 ‘피톤치드’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사람들이 삼림욕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이런 명당을 그냥 지나친다면 섭섭하겠죠.

여기까지 걸어오시느라 다소 피로감을 느끼셨을텐데 제가 그 피로감을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이곳에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뿜기를 반복하면서 폐에 든 묵은 기운을 내뿜고 피로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편한 곳에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엔 가슴을 짝 펴고 큰 나무를 향하여 심호흡을 크게 하며 코로 신선한 공기를 들이 마시고 입으로는 더러운 기운을 내뿜기를 5회 반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심호흡을 할 동안 나무에서 발산되는 테르펜과 음이온을 마음껏 흡입하시면 오늘 여러분의 피로는 싹 가신답니다.

어때요~ 몸과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시죠? 이것이 바로 돈



안들이고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바위관찰



아들바위



주왕산산림욕

(이동-급수대) 저기 앞으로 쏟아질 것 같은 저 바위는 ‘급수대’라고 합니다. 제가 입구에서 주왕산 전설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바로 그 전설의 주인공인 김주원이 은둔생활 할 당시 저 바위 위에 대궐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위 위쪽에는 샘이 없어 여기보이는 계곡 물을 두레박으로 퍼 올려 식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급수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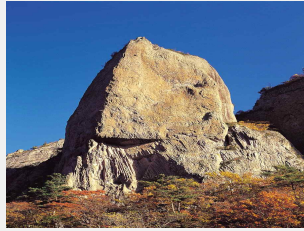
(이동-시루봉) 저기 우뚝 서 있는 바위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측면에서 보는 것이라 정면에서 보는 것이 많이 다르죠. 그럼 이 바위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사람 옆모습처럼 보여 할아버지바위 아니면 도깨비바위라는 생각라고 할겁니다. 그러나 이 바위의 이름은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시루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시루봉인지 궁금하시죠? 옛날 어느 추운 겨울에 도사가 이 바위 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신선이 와서 이 바위 밑바닥에다가 불을 지펴주니 그 연기가 바위 전체를 감싸는 모습이 꼭 떡을 찌는 시루같다고 해서 시루봉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위도 오랜 시간동안 풍화작용으로 인해 많이 깎이다 보니 시루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옆모습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이동-용추폭포) 여기 이곳은 주왕산의 빼어난 명소 중 하나인 용추폭포. 조선시대 때는 외용추, 용추폭포 또는 비로봉 폭포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폭포입구에 기우제를 지내는 제단이 있었고 매년 제를 올리는 행사를 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폭포 위쪽에 하상이 움푹 패어 물이 고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물이 맑아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올라갔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선녀탕과 바로 위에 아홉 마리 용이 승천한 곳이라 전해지는 구룡소라는 곳입니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유수에 밀리거나 굴러 내리는 돌조각이 하천의 바닥을 깎아 내리는 일과 물이 소용돌이치거나 하천 바닥의 모양 때문에 돌조각이 맷돌처럼 돌면서 기반암을 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용을 전문용어로 마식작용이라고 합니다. 마식작용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형으로 포트홀(돌개구멍)과 폭호(폭포수에 의해 생긴 구멍)가 있습니다. 선녀탕과 구룡소는 포트홀이라 할 수 있고 용추폭포 아래쪽은 폭포라 할 수 있습니다.

(동근잎쟁의비름) 지금 저기 암벽에 보시면 동근 잎의 식물이 많이 보이시죠? 이것은 주왕산을 대표하는 깃대종인 동근잎쟁의비름입니다. 이 식물은 주로 깊은 산 암벽으로 이루어진 계곡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암벽 틈

에 돌아옵니다. 주왕산에서 자생하는 둥근잎꿩의비름은 꿩의비름 종류 중에서 잎이 둥글다하여 이 이름이 붙여졌으며 여름에 그 끝에 피어나는 꽃송이들은 진분홍빛으로 아주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급수대



시루봉



용추폭포

### 마무리

모두들 오늘 하루 즐거우셨습니까?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 설문조사와 소감발표가 남았습니다. 먼저 설문지를 작성하신 후 여러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태관광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느끼신 모든 것과 보완점 그리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보다 나은 생태관광 운영의 밑받침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글로 작성해 주세요.

(설문지 작성)

모두들 작성해주신 소중한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소감발표를 한 후 오늘의 생태관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과의 대화: 소감발표)